

# 아이스크림미디어 독후 활동지

## 111년 후 이 자리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자랄 거야

2024  
IBBY 벨기에  
그림책상  
수상작

2025  
화이트  
레이븐스  
선정작



주제어 | #생태전환교육 #환경 #사회운동 #공동체 #상상력 #연대 #희망 #미래

### 책을 소개해요

에디트와 아빠 바시르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이야, 503년 전 늑대 가족이 쉬고 있었어.”

“6700만 년 전에는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냄새를 맡고 있었지.”

동네에서는 어떤지 수상쩍은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111년 후,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상상에서 싹튼, 도시와 마음을 찬찬히 바꾸어 가는 다정하고 놀라운 이야기.

### 함께 배워요

#### #2022 개정 (초등)

1-2 바슬즐 2. 약속 | 1-2 국어 4. 감동을 나누어요 | 1-2 국어 6. 문장을 읽고 써요 | 1-2 국어 8. 느끼고 표현해요 | 2-1 바슬즐 2. 자연  
2-1 바슬즐 3. 마을 | 3 도덕 8.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탐구 | 4-2 사회 2.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 | 5 실과 4. 생활 속 동식물 자원과 활용

#### #2019 개정 (누리과정)

2. 의사소통 책과 이야기 즐기기 | 3.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 5.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이야기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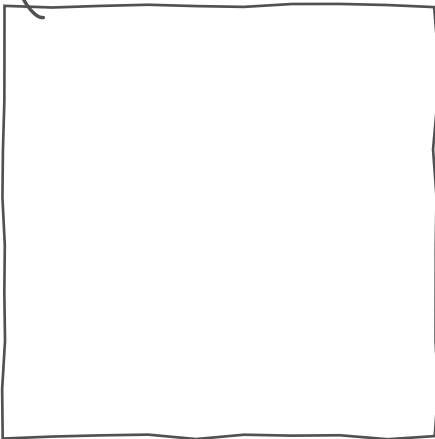
1. 에디트의 아빠, 바시르는 에디트를 ‘우리 귀염둥이 메뚜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특별히 붙여 준 애칭이 있나요? 왜 그런 호칭을 갖게 되었나요? 그 이름으로 불릴 때 기분은 어떤가요?
2. 에디트는 아빠와 산책을 하며 동네의 과거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혹은 여러분을 돌봐 주는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에디트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시르는 여러 방면에서 에디트를 도와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4. 바시르는 에디트가 “111년 후 이 자리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자랄 거예요”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썼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바시르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나요? 바시르가 에디트의 이야기를 장난처럼 웃어넘겼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 삼나무 씨앗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달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바시르와 에디트를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6. 나에게 씨앗이 하나 생겼어요. 그 씨앗을 심었더니 무엇이 나왔을까요? 왜 그 씨앗이기를 바랐나요?
7.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가능해지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에디트는 아빠와 산책하며 양귀비꽃 마을이 먼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과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곳을 찾아보고, 그 장소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본문 전체

→ 과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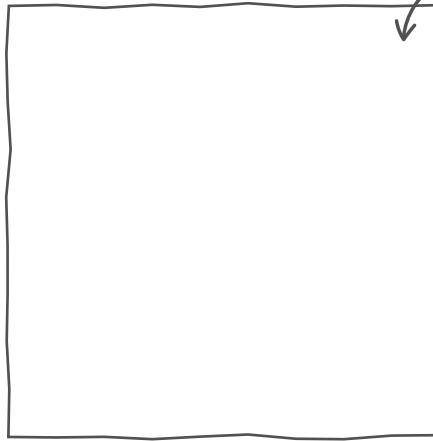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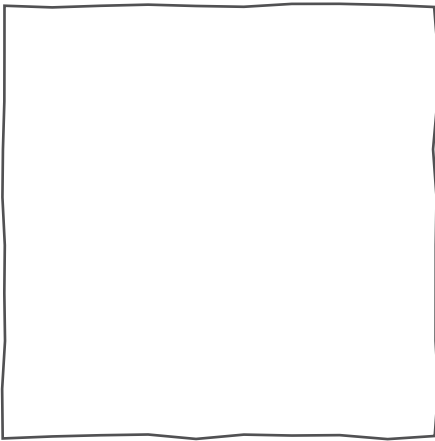
---

---

---

---

---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장소



---

---

---

---

## 책을 읽고 나서

에디트는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고 싶어서 시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디트가 시장이 되어 나무가 많은 도시를 만들어 낸 것처럼,  
여러분도 미래에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본문 전체



나의 장래 희망은?



미래에 “

”이(가) 되고 싶은 이유:

---

---

---

---

---

## 책을 읽고 나서

에디트가 심은 삼나무는 111년 후에도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만나 볼 수 없지만, 미래에도 우리의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답니다.  
만약 111년 후의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누구에게, 왜 그런 말을 남기고 싶은지 적어 봅시다.

본문 전체



111년 후 (

)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책을 읽고 나서

에디트가 심은 작은 씨앗은 오랜 시간을 지나 커다란 삼나무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는 기쁨, 기다림, 용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담겨 있지요.  
『111년 후 이 자리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자랄 거야』를 읽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 장면을 고른 이유도 함께 적어 봅시다.

본문 전체

● 가장 인상적인 장면:

---

---

● 이유:

---

---

---

---



## 책을 읽고 나서

에디트의 작은 생각 하나가 온 동네를 바꾼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도 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요. 우리 일상 속 사소한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면 더욱 좋아요!

본문 전체

나의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어린 독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크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어떤 변화는 거대한 기계나 엄청난 돈이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상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에디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땅을 바라보며 “111년 후 이 자리에 커다란 삼나무가 자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옮겨 갑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흩씨처럼요.

이 책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믿음, 서로를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용기에 대한 얘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수십 년 뒤에는 마을의 광장이 되고, 백 년 뒤에는 숲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조용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여 줍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여러분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가끔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평범해 보이죠. 학교 앞길, 놀이터 한구석, 집 앞 화단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11년 후,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을 품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에디트처럼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누군가는 여러분이 오늘 심어 놓은 작은 마음의 씨앗 덕분에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책,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요.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정재승의 인간 탐구 보고서』 『정재승의 로봇 탐구 보고서』 작가)